



남성 불임 무엇이 문제일까?

흔히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불임으로 진단 받은 경우 중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40% 이고 남성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역시 비슷하게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며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정자가 약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정상적인 성교로 임신이 가능한 정액의 기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기준은 약 2ml 이상, 정자수 2,000만 마리/ml 이상, 운동성 50% 이상, 형태 30% 이상의 정상모양이다.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할 때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액검사 외에 산도(PH), 푸락토스 당, 염증 여부를 알기 위한 백혈구 검사, 정자항체 검사 등이 있다. 만약 위 기준에 비해 숫자가 적거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일단 정자가 약한 것으로 진단 내리게 된다.



정액 검사 상 정자가 약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까?

정자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모양 상 기형이 많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배양액을 사용하여 건강한 정자만을 선별하여 농축해서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요사이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곧 남성 불임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일까?

남성의 정자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1951년도에는 정상 생식력에 문제가

남성 불임

황경진 그레이스병원 원장

남성 불임 체크리스트

1. 과거에 성병으로 인해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을 앓은 적이 없었습니까?
2. 과거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3. 최근 고열을 동반한 질환을 앓은 적은 없었습니까?
4. 직업 환경이 고열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까?
5. 옷을 너무 꼭 끼게 입거나 사우나를 자주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해 고열에 노출 되지는 않았습니까?
6. 고혈압이나 위궤양 치료제,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지는 않았습니까?
7.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8. 잠복고환은 아닙니까?
9. 정맥류가 있는지 검사는 받아 보았습니까?
10. 유전학적인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1. 어렸을 때 이하선염을 앓은 적은 없었습니까?
12. 결핵에 걸린 적은 없었습니까?
13. 술, 담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없는 남성의 5%만이 정자수가 2,000만 마리/ml 이하였는데, 지금은 생식력이 정상인 남성의 20~25%나 2,000만 마리/ml 이하로 나온다는 보고가 있다. 또 덴마크의 한 보고에 의하면 1940년도에는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1억 1,300만 마리/ml, 1990년도에는 6,600만 마리/ml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처럼 통계적인 수치로 보면 확실히 남성의 정자수는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남성의 불임 빈도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전체적인 불임 빈도가 10~15%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 남성 정자수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내분비 교란물질로 알려진 환경호르몬도 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일본 담배에서 발견된 다이옥신류 같은 환경호르몬에 오래 노출된 경우는 확실히 정자수가 감소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남성 불임인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

정액을 검사한 결과 정자수가 적어서 임신에 지장이 있거나 전혀 정자가 나오지 않는 무정자증인 경우, 정자의 형태나 운동성이 비정상인 경우는 위의 '남성 불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